제 283 회 제 2차

서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서천군의회사무과

2020 년 7 월 28 일 (화) 09시 59분

의 사 일 정 (제2차 회의)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 의 안 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군수제출) ····· 2

○의장 나학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제출) (09시59분)

○의장 나학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로부터 보고를 받되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오늘부터 3일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보고가 끝난 다음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투자유치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관광축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 상반기 사업들이 차질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나름의 성과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관내 현수막 게시대에 기분 좋은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셨더라고요.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올 상반기만 저기 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우리 지역경제를 조기에 부양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빨리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재정집행도 있지만요. 그래서 인센티브 1억 5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동준 의원

많이 집행하셨다는 말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서천군이 그동안 계속 지적됐던 것이 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이월예산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올해 특히나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거나 하반기까지 잘 정진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이터를 좀 봤는데 작년까지도 사실 우리가 이월예산이 여전히 충남에서도 두 번째로 가장 좋은 높은 수치로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게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예산 현액대비 거의 1,000억 가까이가 이월예산으로 잡혀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재정의 안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고 하는데 특히나 우리군 같은 경우에 재정이 열악해서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이월액이 많다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결국에 다른 자치단체들은 또 잘 운영을 한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이번처럼 상반기처럼 어떤 각고의 노력들을

각 부서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극복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우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찌보면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월사업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올해는 조금 많이 줄어들 걸로 저희들이 봐요. 이렇게 보니까 올해 준공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또 한 가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부터는 집행이 좀 불가하거나 조기에 집행이 필요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계속 "한다, 한다……" 했었습니다만 또 사업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다 있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랬는데 이번부터는 강력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저희도 감사나 이런저런 얘기해서 들어보면 당연히 그런 말씀들을 예산심의 때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상반기에 집행했던 전례도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군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물론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외부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특수한 몇 가지 사례들이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같은 조건에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검해서 관심가지고 진행하면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정운영 관련해서도 이번에 쭉 전체적으로 기획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코로나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비대면 사업들을 발굴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실제 사업취소나 축소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코로나 관련해서 좀 코로나 쪽에 저희들이 군비를 약 36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의 상당수가 기존에 있는 지출을 구조조정해서 했습니다.

○조동준 의원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도 사실 이게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갈 건지 완전히 잠식될 건지는 사실 미지수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에 맞춰서 각 사업별로 조정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몇 개 사업들은 그렇게 예측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겠다, 사업내용을 축소하겠다, 조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런 반영 없이 전반적인 사업들이 전반기에 제시됐던 내용에서 크게 변함없이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차수로는 3차 추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그 지점에서 각 사업별로 점검을 해서 코로나에 따른 사업 취소나 축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아예 취소가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나머지 지금 군민체육대회나 이런 큰 행사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군에서 아직 빨리 결정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국면에서 이걸 저희가 상황을 봐서 직전에 취소하거나 하는 것은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아예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예측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바라보면서 조정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

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23페이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동백대교 개통이라고 달았는데 지금 올해 6월말 현재도 5만 2,000명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7월에 5만 3천, 18년 7월에 5만 4천, 17년 7월에 5만 5천. 거의 1,000명에서 이쪽저쪽으로 계속 줄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5만 7,99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에 어느 날 보니까 인구정책팀이 바뀌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인구정책팀 몇 년 운영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을 거고요. 처음에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국가에서부터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인구정책을 집중적으로 해 봐라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구팀을 운영을 하다 보니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또 대체적으로 지자체들이 인구팀을 없애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4대 분야 52개 사업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거창하게 얘기하시지만, 물론 이게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들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무튼 저도 2015년, 16년쯤에 지방소멸에 관한 얘기도 하고 인구정책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도 드렸지만 지방소멸의 얘기가 나오면서 더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실 이 정책의 효과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그러니까요.

○조동준 의원

언제쯤 나타날 걸로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아니, 제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만 나오면 사실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 어떤 정답이라는 게 상당히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출산의 문제고 저출산은 국가와 연동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쪽지역에서 인원을 빼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별로는 할 수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기대를 하셨는데 그만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 다른 지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다른 지역과 동등한 대동소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자, 하고 몇 가지 2~3개 사업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계획들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아무튼 뭐 다른 지자체들도 다 동일한 문제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1명을 안 낳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군은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그 감소세가 특히나 충남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사실은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그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어떤 정책을 하시는데 다 계획에 대한 목표들이 있고 그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변경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말씀처럼 지금 인구정책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실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답이 없어요. 그럼 인구정책을 포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4대 분야 52개 사업까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해오던 정책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말씀처럼 좀 다르게 특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까지 보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그리고 제가 아쉬운 건 불과 3년간 소위 이걸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인구정책팀을 기획실에다 만들어서 불과 3년 만에 그걸 변경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인구정책을 인구의 문제를 얼마나 중점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표상적으로 하는 일들 외에 정말 이거에 대한 절체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와 연동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추진을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추진을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직을 전환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아무튼 결국에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과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군정의 기조에서 중요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집중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그런데 그 부분도 다 인구문제하고 연관된 거죠.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인구정책팀을 불과 3년 만에 없애고, 업무적으로도 보니까 업무편제를 보니까 직원 1~2명이 일부 업무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쨌거나 중요도를 인식하는 지에 대해서 제가 회의적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바람은 어쨌거나 저희가 모든 지역에서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건 사실 학자들도 그러더라고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건데 어쨌거나 역설적으로 우리군은 매년 1,000명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방소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설마 없어지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이 지점이 어느 지점까지 갈지 모르는 것을 보면 저는 좀 더 정책적으로 우리군에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1페이지 야간경관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이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천읍과 장항읍, 서면 그다음에 문화재 생태지구 해서 내륙지역을 좀 하셨는데 야간 관광에 대한 경관성을 높인다고 하는 부분에서 나머지 도시지역은 이해가 가지만 문화재 생태지구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신성리갈대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기 보면 봉선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간에 경관을 조명해서 그곳을 밝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고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럼 지금 일단 신성리에 설치된 건 임시적으로 하신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아니, 그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관광축제과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그쪽이 아니고 한산모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거고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때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둘러보고 어느 게 가장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래주시죠. 어쨌거나 생태적인 관점에서 생태지구를 경관조명과 결합해서 넣은 건 정말 엇박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구자들하고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상황에 변화들이 많이 생겼고 그런 지점에서 일단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드렸던 것처럼 연말까지 정말 잘 이 기조로 가서 기존처럼 저희가 열악한 재정에서 예산들을 불용하고 넘기고 하는 일들이 축소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주도해서…… 실·과별로도 많이 차이가 나요, 이월예산이 보니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군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워졌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한 가지, 공모사업 관련해서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그런데 공모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보니 각 부서별로 비슷한 사업들이 있기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또 연계사업들이 있는데 연계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각 부서별로 성과를 위해서 각 부서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군비가 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선정이 되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 이후에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좀 신중히 고려해서, 신중히 고려해서 다른 부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저번에 의회 현장방문 했을 때도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바꿔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론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정책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계속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조사가 다 되면 우리가 자체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토대로 이건 정말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재차 한번 실·과에 꼭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선 첫 번째는 각 팀장들로 하여금 같이 모여서 한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나 연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검토가 끝나고 나면 다시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신청 전에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또 아까 조동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관광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에 똑같은 부분입니다. 생태지구가 있고 우리가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야간경관을 조성하면 오히려 나중에 그로 인한 더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용역을 줄 때 꼭 생태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꼭 참고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아까와 또 연결되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는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용역을 줄 때 서천에 관한 실상은 우리 담당부서나 담당팀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그 용역사한테 그냥 모든 걸 맡겨버리지 말고 우리 실상에 맞는 조건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사업지시를 우리 서천에 맞는 사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쪽에 문화융성도시 서천 프로젝트를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문화예술분야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한 가지 애기로는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애기가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담당자는 인사가 변동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다음에 업무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바뀌면 사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업무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장항의 집이라든지 장항 쪽에 지금 문화시설이 많이 확보가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그리고 서천읍에도 계속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그래서 조성하기 전에도 어느 쪽으로 활용 가능한지, 조성 전에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하시고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성 전부터 활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덕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래 사회복지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사회복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강신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강신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도 드릴 겸 묻고 싶습니다. 46페이지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 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많이 더 넓힌다고 하셨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더 발굴을……
○강신두 의원
발굴을 하면 돈이 있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면 긴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일정의 금액이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신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저기한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라든지 심리상담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자원을 연계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의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수급자, 소녀가정 이런 데 보일러, 창호 이런 사업도 있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강신두 의원
그걸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저희군에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은 저희 실에서는 별로 없고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의원
그런데 신청을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신청을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저께도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한 230가구 정도를 지금 저희가 추천을 했거든요.
○강신두 의원
230가구면요, 서면에도 230가구가 넘어요. 1개면에도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런데 읍·면에서 조사가……

○강신두 의원

읍·면에서 내가 듣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못을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잘못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7개 지역 서면에서부터 시초, 문산까지 7개면 다니면서 이장들한테 말씀도 한번 해보고 이런 옆집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신청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작년에는 이유 없이 선풍기 하나씩 다 해줬어요, 15만 원인가 17만 원짜리.

신청 자체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뭔가를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방해라고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공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 사업이나 도사업이나 정부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인 에너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청을 해 주고 보면 예를 들자면 장판을 깔아달라 했는데 그 장판을 깔아주고 나오는 문턱 앞에 장판을 깔려면 5만 원이 더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안방은 깔아주는데 바깥에 5만 원짜리 깔아주지 못하고서 나오니까 이걸 군에서 안 깔아주니까 군에 전화를 했어요. 실무자들이 "우리 소관 아니에요, 에너지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 한 게 아닌 거라 우리는 몰라요" 이 답변 듣기 싫어서 신청을 않는 거래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런 부분은……

○강신두 의원

작년에 에너지공단에서 10억이란 돈이 왔어요, 작년에. 지금 서천군 13개 읍·면에서 한산면만 최고 많이 했어요. 한산면에 사백몇 개 신청했어요, 가구수가. 380가구인가 400가구 했어요, 한산면만.

지금 13개 읍·면 중에서 이백몇 개, 삼백몇 개가 이게 말이나 돼요? 이만큼 않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장판을 깔고 싶은데 에너지공단에서는 다른 사업들을 이렇게 해 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신두 의원

지금 제가 엊그제 7월 10일 경에 내가 그분들 사실 만났어요. 만나서 물어봤어요. "작년도에 어떻게 했고 금년에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신청을 하면 10가구면 10가구 20가구면 20가구 1,000가구면 1,000가구를 집집마다 가더라고요. 가서 거기에 200만 원 한도 미만 창문이냐 에어컨이냐 보일러냐 이거에 대한 것을 안 해도 될 것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선풍기를 줬고 그중에서 필요한 걸 하나씩을 다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신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해줘요, 이걸.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강신두 의원

작년도에 10억이 왔으니까 지금 200가구, 300가구 신청했다는 거는 1개면 사람밖에 안 돼요. 이렇게 여유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안 하는 이유가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내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 부분은 다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추가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가족누리센터 8월 완공되나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지금 업체에서도 최대한으로 완공하려고 계

속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바깥에 창호공사가 진행이 됐고 내부에 조적이라든지 미장 그 부분 하면 거기에 전기·소방·통신이 들어서고 2층에 태양광 그거 하면 아마 8월중에는 이 상태로 나가면 준공은 될 것 같습니다.

○김아진 의원

예, 저도 다시 재개됐다고 해서 갔다 오고 설명도 듣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8월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네, 저희들이 매일 공사감독 나가서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52쪽에 여성친화도시가 있죠. 우리군이 2018년부터 선정이 돼서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그런데 주변에서 우리군이 여성친화도시인 거 아냐고 물어보면 뭔가 와닿는 게 없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정책적으로 보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지만 그렇다면 여성이 느끼기에 안전이라든지 여성정책이 더 많아졌다라든지 이런 직접 와닿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 정책이 뭔지도 모르시고.

또 몇 가지 여성대표성에 대한 것도—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오히려 하락을 했고, 양성평등기금 조성하는 것도 목표액이 5억인데 지금 얼마 되어 있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지금 2억 5천인가 얼마가……

○김아진 의원

예, 2억 반 정도밖에 안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이 목표액 달성도 못해서 이 사업이 목표가 뭐였는지 기금조성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의미가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로만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서 앞으로 여성에 대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많이 할 것이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네.

○김아진 의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여성리더 활동가를 계속 양성하고 있어요, 여성친화도시 그 계획으로 해서. 그런데 여성리더 활동가를 하시던 분들이 계속 또 하시고…… 그 교육을 받았으면 직접적으로 마을이나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활동장소가 별로 없죠. 활동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받아놓고 활동을 안 하는 이런 경우가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저희들이 여성리더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모집 제공기관 있습니까?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장애인부모회하고 종천에 노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지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네.

○김아진 의원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복지실에서도 점검도 자주하시고 지원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노인일자리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지금 여기도 보면 현장점검을 1차·2차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어른들을 일자리를 해서 무조건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데는 문제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수행기관에 미루는 것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매일 반복적인 데서 반복적인 일자리를 하고 계세요. 하다보니까 어르신들 간에 뭐라고 할까 불화가 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 또 일자리 발굴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아니면 소수로 분류해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점검하고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일자리 발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공익형을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시장형으로 해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형 사업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제 의원

어르신들을 우리가 일자리를 드려서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이렇게 활동도 하시게끔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노인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변화가 없어요. 그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연령별로 차등을 둬서 우리가 일자리도 그분들에 맞게 현실적으로 맞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올 사업이 끝나기 이전에 한번 토론을 거쳐서 수행자들하고 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수행기관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방안을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이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이현호 의원입니다. 66쪽에 미등록경로당 및 노인이용시설 운영비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이현호 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미등록경로당과 노인이용시설에 관해서 난방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확정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당초부터 지원하는 걸로 방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안전봉 이 부분도 미등록경로당이나 노인이용시설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이현호 의원

안 되는 이유가 규정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게 보험회사 그쪽에서부터 미등록경로당 같은 데는 들어주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실장님, 저도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경제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그 관점에서 저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지금 큰 제목에서 '공익형 및 시장형 일자리 1,000개 창출'이라고 했는데 시니어클럽 활성화로. 지금 이게 공익형과 시장형을 합쳐서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만.

○조동준 의원

시니어클럽에서만? 그럼 1,400개 창출했으니까 이미 초과달성하셨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지금 총 3,000개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3,092개.

○조동준 의원

3,092개. 지금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1,400개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기관에서 1,600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하고.

○조동준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하는 시니어클럽에서 말씀처럼 1,400개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관에서 1,600개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저희가 기관별로 작년 수준에 저기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1,000개 창출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을 때 노인일자리를 얼마나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저희가 당초에는 탈락자 없는 일자리를 창출을 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더라고요, 작년 수준 저기해서.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3,092개……

○조동준 의원

지금 계속 늘어났죠. 계속 늘어나서 3,000명까지 늘어났는데 그중에 사실 공익형은 2,600명 정도고 그러면 나머지가 한 400명 가까이가 시장형인가요?

전체 시장형인가요? 아니면…… 공익형 말고 나머지, 지금 시장형 말고 또 하나가 있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지금 시장형은 시니어클럽에서만 하고 있고.

○조동준 의원

순수 시장형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동준 의원

600명이요? 안 되죠. 지금 공익형이 2,600명인데 나머지가 400명……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시니어클럽에서만. 시니어클럽에서만 1,400자리 중에서.

○조동준 의원

아니, 지금……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다른 데 노인복지관하고……

○조동준 의원

지금 추진계획 밑에를 보면 현재 공익형 일자리가 총 2,644명 아니에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그런데 전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3,092명이면 빼면 400명이잖아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400명이 이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4개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급식지원사업이라든지 무료급식이라든지 그 부분이……

○조동준 의원

아니, 그래서 시장형 일자리가 몇 개라고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한 60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 공익형 일자리 2,600명은?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아, 이것은 여기에 공익형도 들어가는데 무료급식사업이 지금 4개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 400명 정도가 무료급식사업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무료급식을 않기 때문에 사업을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익형일자리 3,092개의 일자리 중에, 실장님 잘 보세요, 공익형 일자리는 몇 개예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공익형이 지금 2,644자리로.

○조동준 의원

그러면 참여를 하거나 않건 아무튼 3,092자리 중에 몇 자리가 남냐고요. 400자리잖아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400자리.

○조동준 의원

나머지 400자리에서 시장형이든 뭐든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지금 여기에서도……

○조동준 의원

파악이 잘못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일자리를 600개 운영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지금 공익형은 얼마 드리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어떤…… 임금?

○조동준 의원

예, 공익형 일자리 얼마 드리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지금 30만 원씩.

○조동준 의원

시장형은?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시장형은 판매해서……

○조동준 의원

여기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수입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런데 시장형이 600자리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조동준 의원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실 군수님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또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노인일자리를 계속 늘려야 된다고 요구를 하시고, 아까 얘기하신 탈락자 없는 노인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시지만 초장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너도 나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전년도에 탈락 몇 명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자가 생기잖아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생깁니다.

○조동준 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생겼었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3천자리까지 늘렸는데도.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사실 홍보하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대외적으로. 실제도 그렇죠, 우리 충남에서도 군비부담 자체부담을 상당한 수위로 하고 있죠, 우리군이?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다른 자치단체보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저희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일자리가 많이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노인일자리사업 비용 말고 우리 자체부담으로 더 늘려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군비부담해서.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 비율이 높다고요, 부담하는 비율이. 그렇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농촌 같은 경우에 결국에 저희가 농촌에 일자리들이 농업의 일자리들이 사실 어르신들이 필수불가결이긴 한데 현장에서 농민들이 지역에서 일 하실 분들을 못 구하신다고 난리죠. '여기 가면 편하게 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현장에서 사실 이게 저는 전적으로 일의 효율성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운영돼야 되는데 거의 불필요하게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저도 다니면서 심심치 않게 다들 보잖아요, 이분들 활동하시는 내용들을.

저는 지금 상반기에 47억 가까이 잡혔던 사업비가 집행이 벌써 47억 100%라는 얘기는 이건 추경에서 더 세우겠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면 현재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 다 지급된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죠. 앞으로 7월달부터 하반기까지는……
○조동준 의원
그러면 일자리 참여 안 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해야 됩니다.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189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78억 정도가 집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조동준 의원
밑에 이행도.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2020년 사업비와 집행액.
그 밑에 칸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이것은 이행도 6월말까지 했을 때, 6월말까지 사업비……
○조동준 의원
나머지 그러면 추가 100%가 되나요?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 말씀이.
2020년도 총사업비가 47억이고 현재 집행잔액이 47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2020년 6월말까지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동준 의원
그러면 하반기에 47억이 또 집행될 예정인가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 아까 말씀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동준 의원

아무튼 이 지표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좀 그 참여 일자리하고 현황하고 예산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 또한 부담을 갖는 사업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 측면에서 복지에 대해서 퍼주기란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진짜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밖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노인일자리를 늘려야 되지 않냐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전체 인원이 다 참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몇 명을 빼고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노인일자리사업이 꼭 효과성을 노리는 것보다도 같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조동준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선별적 복지 뭐 이런 논쟁도 있고 한데 보편적으로 많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일자리로의 기능보다는 복지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일자리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복지가……

○조동준 의원

그런데 특히나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참여인원도 계속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계속 늘려서 갈 거냐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도 뭐 실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쪽 분야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당초 시니어클럽은 사실은 공익형보다는 시장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설립취지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네.

○조동준 의원

아까 600개라고 하셨는데 1,400개에서 정확하게 시장형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공익형을 운영하라고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주진 않은 거예요, 취지에 비하면. 그렇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네,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건 아시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네.

○조동준 의원

그런데 사실 여전히 시니어클럽도 공익형을 대다수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수행기관이 전담기관이라고 시니어클럽을 적시했지만 더 많은 일자리를 나머지 두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다른 기관들에서도 했던 걸 이번에는 다 걷어 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작년까지는 군에서 했었는데……

○조동준 의원

군뿐만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들도 필요하면 운영을 했었잖아요, 몇 개씩 맡아서.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것은 없었어요.

○조동준 의원

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가 했었는데.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제가 와서는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군청하고 계속 그렇게 4개 기관이하다가……

○조동준 의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거나 총 노인일자리에 대한 숫자를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늘려가면서 결국에 기능적으로 시니어클럽이 해야 될 일들과 관련해서 시장형에 더 집중해야 되는 기능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3,000개나 되는 일자리를 관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나머지 지금 이게 주 사업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들도 이거 운영하는데도 턱없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군이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노인고령화 비율이 높으니까 일면 이해는 하지만 아까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획실에서 인구정책도 얘기하고 저희가 지방소멸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포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예산들이 적정하게 청년들과 여성들과 이런 부분들에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 노인일자리 노인정책에 매몰돼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주셔서 적정한 숫자가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이 효율성은 일을 많이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이분들이 가서 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공익형도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늘려서 막 그렇게 다니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튼 길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재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가족누리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당초에 올 봄에 이미 준공이 돼서 여기에 입주하기 했던 기관들이 있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그럼 입주하기로 한 기관들에 세워놨던 예산들과 관련해서 조정은 좀 됐나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아직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8월달에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조동준 의원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됐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차질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기관들이.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래요? 봄에 이쪽으로 입주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원래 4월말까지 공사를 준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조동준 의원

그렇게 계산해서 세웠던 예산들인데 차질이 없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쪽에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저기 하겠죠. 그런데 기타 뭐……

○조동준 의원

그런 것들이 차질이죠. 8월까지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연계된 문제들까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주가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삼거리 쪽에 임대로 하고 있는데……

○조동준 의원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새로일하기센터는 윤정재단에서 무료로 이렇게, 지금 임대료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동준 의원

임대료 관련해서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주로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동준 의원

연계된 그런 문제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아무튼 8월까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쪽에서도, 저희가 지금 몇 번이나 공사계약 해지한다고 하고 뭐하고 해서 지난 6월 29일부터는 일요일날 제외하고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부 조적이라든지 미장 그 부분만 끝나면 전기·소방·통신은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부정리만 조금 되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원래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폴리텍대학 관련해서요, 영천 폴리텍대학이 6월 19일날 인가가 돼서 내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영천 폴리텍대학이 인가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어놓고 사후에 교육부에 인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인가 신청을 했다가 미뤘어요. 인허가를 안 해줘서 올해 다시 준비를 해서 다시 신청했는데 다행히 6월달에 인가를 해 준 사항인데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폴리텍 본부가 부처 간에 이런 이견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동준 의원

인가를 받은 이유가?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조동준 의원

인가를 받은 이유……

아무튼 영천 폴리텍대학은 우리하고 형편이 많이 다르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조동준 의원

많이 달랐죠. 말씀처럼 거기는 이미 건축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시점이었던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조동준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된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맞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조동준 의원

이미 지어져 있어서.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교육부에서 안 해줄 수 없었다.

○조동준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군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천 폴리텍대학이 교육부 법인인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인허가 남은 시군이 저희 포함해서 3개 시군인데 다 조금씩 틀립니다, 절차 이행 정도가. 우리가 조금 가장 낮게 진행 중에 있는데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교육부를 지금 만날 계획이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부와 최종적으로 인허가에 관해서 시군마다 다 특징이 틀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조동준 의원

사실은 돌려서 얘기하면 영천은 이미 지어놓고까지도 인가를 못 받아서 한참 이렇게 딜

레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그런 거 없이 영천처럼 막 짓기 시작할 수 있어요, 건물을?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건물을 절차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사업계획수립부터 해야 되는데……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뭘 근거로 이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그동안에 쭉 해왔던 얘기가 대학본부에서도 영천 것이 일단 인허가가 되게 되면 긍정적으로 교육부에서 나머지 3개 시군도 긍정적으로 해줄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조동준 의원

사실 기존에 보니까 영천도 계속 이 직전까지도 전국전문대학총장들이 같이 모여서 여기서 설립인가를 반대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반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것이 폴리텍대학이 현재 우리 여러 가지 형편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지 푯말 하나만 박아놓고 지금 말씀처럼 다른 데가 건물 다 지어진 영천이 인가를 받았다고 우리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어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른 방향으로 또 전환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군수님 이하 같이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사실 폴리텍대학에 대한 유효성이 얼마나 높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얘기했던 자원관이나 생태원과 연결된 어떤 전문대학·전문대학원, 아니면 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한 어떤 해양캠퍼스 이런 부분들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냐, 푯말 박아 놓고 5년째 지났는데 이거 가지고 이게 가능성 높아졌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계속 정상 추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고 군민들한테도 이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일단 저희들은 이거를 포기를…… 지금부터 이걸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검토를 안 한 바도 아니지만……

○조동준 의원

포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데 이거에만 목멜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학원, 대학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지금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하는데, 폴리텍대학은 그동안에 2015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그동안에 앞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마무리를 최대한 해보자 어렵지만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조동준 의원

그 입장은 지금까지 충분히 그래서 어렵지만 추진 해보자로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5년 가까이를. 그런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사실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교육부나 이런 중앙부처의 입장들도 그렇고 다른 쪽을 통해서 제가 들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군민들에게 헛된 희망만 주고 계속 어떤 정치적 이슈로 가져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 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오용되지 않고 우리가 힘을 들이는 만큼 다른 것을 좀 더 유용하게 뽑아낼 수 있다고 하면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그 기능을 살려서 가져오는 게 훨씬 전략적으로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천 사례를 가지고 제가 느낀 바로는 '아, 이제 영천만 해주고 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건물 지어놨던 곳이니까 영천까진 해주지'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거죠.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걸 보고 달리 해석하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과장님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5년간 한 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이렇게 막혀있는데 갈수록 저는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폴리텍대학인데 여기다 정상추진을 계속 요구 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이어 간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어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일단 폴리텍대학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 해보고……

○조동준 의원

끝까지가 언제까지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한 말씀만 드리면 영천 것이 로봇관련 특화된 폴리텍대학인데 경상도 쪽만 해도 한 9개 정도 학과가 있고 전문대학도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수없이 많은 로봇대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인허가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전문대학협의회에서 일단 관련 학과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추진하고 있는 파주라든지 저희들하고 밀양 같은 경우는 전국 유일한 그런 전문대학이거든요, 이게. 해양바이오 그다음에 파주의 인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영천 거하고는 또 다른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대학원,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결정적인 건 아무튼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천하고 다른 게 거기는 건물을 다 지어놓고 지금 어쩔 수 없으니 해준 거라고 저는 본다니까요. 그쪽 정치권도 그런 걸 맥락으로 계속 요구해서 관철을 시킨 거고, 저희는 푯말 하나 박아놓고 지금 5년째인데 그 소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만 가지고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전체 지금 교육현실에서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아무튼 노력해 왔으니까 이걸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이해가는데 어떨 때는 또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전환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참고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아무튼 점검을 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기업유치 관련해서 지금 4개사 정도가 완공이 된 상태예요. 보니까 선진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된 480억 투자가 됐고 지금 완공된 나머지 3개 기업도 가동이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가동이 정우물산만 최근에 해썹 인증을 받아서 가동……

○조동준 의원

허스델리와 TSPG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다 가동 중에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가동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에 대한 채용이 다 마무리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운영 중인 곳은. 지금 정우물산은 앞으로 뽑을 계획이거든요.

○조동준 의원

사실 아쉬운 건 기업유치가 우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일자리확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선진 같은 경우에도 480억 투자된 금액인데 일자리는 총 30개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조동준 의원

그러면 실제 이 30개는 지역채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일자리고 관리직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여서 지역에서 채용하는 인원은 사실 열 몇 명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나마 허스델리가 104명의 일자리 채용이 되어 있네요, 목표로.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조동준 의원

여기는 어떻게 지역채용을 좀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지역채용을 많이 했고요. 복지재단에서 많이 도움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백열몇 명인가를

모집한다고 공고 나가서 관내에서 한 60%, 나머지 한 40%가 군산 쪽에서 온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사실 저희군 입장에서는 선진 같은 중소규모급 이상의 기업들이 오는 것도 좋은데 허스델리 같은 기업들이 사실 도움이 되는 거죠, 당시 취지에 부합하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기업유치에 애를 쓰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어요. 아니,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유치하는 기업들이 지역에 실제 도움이 얼마나 되냐에 대한 궁극적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죠.

TSPG 같은 경우 14명 이렇게 되니까 사실 지역채용들에 대해서 보면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제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군에 입주하는데 기계화 되거나 자동화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 그런 걸 감안해서 어쨌거나 좀 가급적이면 일자리창출형의 기업들로 저희가 접근해서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선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단계 착공에 들어갔어요. 그것까지 하게 되면 100여 명 아마 직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조동준 의원

2단계 공정은 더 작은데 그렇게 인원이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본사 이전까지 하고 연구소 이전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0여 명 된다고 얘기 하니까.

○조동준 의원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다, 뭐 아마 내년까지는 본사하고 연구소까지 내려오는 걸로 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회사가 굉장히 일자리가 많아요. 정우물산도 한 구십몇 명 그렇게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동준 의원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정우물산도 한 9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기업들을 되도록이면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장 나학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언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102쪽에 사이버 1만 서천군민 가입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예.

○김아진 의원

그러면 사이버군민으로 가입이 되면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있죠?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예,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것들을 좀 더 홍보를 하시고. 지금 추진계획에 그냥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그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새 유튜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 영상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요즘서천'이라고 우리 그 채널도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107쪽에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예. 그동안 자격증이 없었는데 상반기에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교육 이수해서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김아진 의원

교육이수만 하면 취득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시험도 봐야 됩니다.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시험을 합격해야만 자격증 취득이 됩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관내에 지도조종자가 없다고 그렇게 아시는데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더 파악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예.

○김아진 의원

그다음에 앞으로 재난상황에서 드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인데 그럼 전반적으로 농업용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용이라든지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관리목록이라든지 실사용자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농업용 드론은 아마 농정과에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산불상황이라든지 어떤 태풍 같은 경우, 축제 이런 것만 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쪽은 아마 따로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목록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드론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어쨌든 사고나 이런 것들도 있고 위험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총괄적인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예.

○김아진 의원

그래서 민원실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파악하고 계셨으면 해서, 앞으로라도. 또 실명제로 간다고 알고 있어요. 이 드론 실사용자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총괄적인 책임이 한 부서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드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자격증을 따셨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예,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우리 직원이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그렇죠, 직원입니다.

○조동준 의원

지금 이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계속 운영하실 거죠?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계속 해야죠.

○조동준 의원

이 방침으로 하는 건 그냥 임시방편인가요, 일단은?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조동준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쪽 부서에 팀장이나 직원으로 배치되면 자격증 다 계속 따셔야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지금 업무부서가 저희부서 지적정보팀에서 하는데 1차적으로 드론이 현재 충남도하고……

○조동준 의원

아니, 추가적인 건 제외하고, 운용을 지금 팀장님하고 직원이 상반기에 따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 업무를 하셔야 되진 않잖아요. 인사가 있으시면 이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직원이 오시면 새로운 직원이 이 자격증을 따셔야 되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그렇기도 하고요. 그 업무가 지적정보팀에서 하는데 그 업무를 지적직만, 행정직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지적직이 거의 그 자리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적팀이라든지……

○조동준 의원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바뀔 확률은 많지 않다는 거죠.

○조동준 의원

김아진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부터 드론실명제가 시행되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6월달에 통과가 됐고.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예.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건 임시방편이라고 생각드는데, 어쨌거나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하셔야 되고 이걸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이 관계 지도조종자를 저희가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쓰든가 전문적인 운용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자격증을 그때그때 이수해서…… 아무리 운용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데.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게 드론이 앞으로 계속 4차 산업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려면 전문적인 운용조종자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운용을 해야 여기서 얘기하는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이게 임시방편이냐는 얘기를 제가 여쭤본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전문조종자를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250g만 돼도 사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군 자체에서 이렇게 담당직원이 임시방편으로 자격증 따서 운용하고 하는 형태로 하면 안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래서 아무튼 추가적인 거야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언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123쪽 여성사무관 확대에 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또 자치행정과장님과 개인적으로 만났고요. 설명도 듣고 조금 이해하고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아진 의원

그러고 나서 지금 두 번 정기인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말씀으로는 여성사무관 승진하고 또 부면장으로도 확대배치하고 해서 사무관 확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여성사무관 퍼센트는 어떻게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저희들이 여성사무관은 사무관 전체 인원수가 41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여성사무관은 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치 대비해서 달성은 하지 못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아진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남성하고 여성하고 보직 비율을 보면 현재 우리가 전체 실·과, 사업소,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한 150개 정도 팀장 보직이 있어요.

그런데 본청은 실·과, 사업소, 읍·면까지 포함해서 106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남성이 한 76.9%, 여성이 한 32.1% 이렇게 분포도가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 한 90년대 중반부터 그때까지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대체로 많이 들어온 형편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직비율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임용체계를 보면 지금 6·7급까지는 남성이 약 6 대 4, 여성이 4정도 되는데 8·9급은 여성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지금 5.5 대 4.5. 남성이 4.5 여성이 5.5.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사무관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여성들이 더 앞으로 많이 진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충청남도 중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5급 승진을 시킬 대상이 말씀으로는 표현으로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보직을 그 자리를 인사관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셔서 역량을 키워야 또 승진대상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죠.

○김아진 의원

배울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같은 6급이라도 보직이라도 주무팀장 자리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 주무팀장은 대부분 남성들이 주로 점하고 있는데 여성도 본청에 한 2명 그리고 그 외에 한 분이 있고 또 사업소 이런 데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가면 아마 사무관이 공로연수 들어갈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면 어느 정도 목표치에는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김아진 의원

그렇다고 또 남성하고 해서 뭐 그 자리를 뺏어서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일

을 했으면 형평에 맞게……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분명히 실력으로 뒤떨어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급을 하지 못하면 의기소침해지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아진 의원

고려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다음에 서림학당 126쪽에 어떻게 그 이후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 이후로 잘 해결이 됐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천사랑장학회 정관 제4조제6호에 하나 더 추가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중·고등학교 학습 및 입시진로 지도사업이라고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13일날 도교육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의 정관변경 신청건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정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또 행정사항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사항을 적정하게 운영할 것을 또 요구했고 거기에 저소득이나 다문화가정 그리고 기초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그리고 서천장학회와 관련해서 교육기관 의견도 이렇게 수렴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행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때도 지적 드린 것처럼 소통이 좀 잘되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한 가지, 지금 고3 대상 온라인 실시간 강의 했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아진 의원

그러면 고3 전체 학생에 대해서 온라인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아니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강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대면 수업을 할 거예요. 7월부터는. 그동안은 온라인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마무리 된 거고 앞으로 7월 13일, 18일 이때부터 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아진 의원

온라인수업 할 때 이 서림학당에 다니는 고3 학생들만 한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맞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김아진 의원

어차피 온라인이니까 들을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했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를 못했네요.

○김아진 의원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확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다음에 129쪽에 특별승급제도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이게 뭐냐면 직무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이건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2명씩 뽑아서 특별승급, 그러니까 승급을 하든지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두 가지 방안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격요건이 있어요. 자격요건은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 돼야 되고 최근

2년간 실적이 또 있어야 되요. 그렇다 보니까 특별승급이라는 건 승급을 하나 올려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7급 10호봉에서 11호봉. 1호봉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호봉이 하나 올라가는 게 보통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6급에서 한 25년 정도 남았다고 계산해 보면 그게 한 2,500~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센티브가 되고.

여기서 봐서 특별승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성과급을 또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성과급은 SS, S등급 이렇게 해서 SS는 S등급의 배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 A……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가 아닌 S등급을 주는 거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신청해야 되고 저희들이 공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추적도 해야 되고 실제 공적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를.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거기서 감안해서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김아진 의원

그럼 심사위원회가 또……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별도 구성을 해야 돼요.

○김아진 의원

아직 구성된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죠, 아직 구성은 안 됐어요.

○김아진 의원

이제 처음 해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올해 처음. 이게 신규시책이거든요.

○김아진 의원

그러면 이것도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그 능률을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기록물에 관해서 설명을 안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기록물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셔서 그때 잘…… 제가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아진 의원

7월달에 심의회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래서 지금 계획은 7월말 이렇게 잡았는데 8월초에나 되려나, 하여간 저희들이 로드맵대로 일정대로 추진할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 좀 중점적으로 교육도 하시고 관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경제 의원

1억 3,3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경제 의원

총 몇 명이나 수혜를 입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중·고등학교…… 그게 단계별로 조금 틀리거든요. 1학년이 지금 약 430명 단계별로, 그래서 이게 2021년도면 마무리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약 430명 지금 1학년생들 그렇

게 지금……

○김경제 의원

지금 구매방법을 학교별로 단체구매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제 의원

보조금정산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경제 의원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들 했어요, 보면? 학교별로 유형이?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구입은 학교별로 이게 수의계약 대상되는 부분은 아마 자체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했고.

○김경제 의원

자체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게 구매를 어디에서 주로 하는지 파악은 안 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김경제 의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있어요. 우리군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상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학교주변에서 교복을 소규모로 팔던 이 사업자들이 대량구매를 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타지에서 다 구입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군에서 무상지원 해 주는 것이 지역상권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관심 좀 갖고 실질적으로 외지의 업자들과 지역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캡이 얼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이게 무조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무슨 수혜를 입는 분들은 당연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군 자체가 인구소멸이니 뭐니 해가면서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지원을 해 줄 때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연말에 가서 보조금 정산만 해서 정당하면 주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나름대로 내부 검토해서 지역 내에서……

○김경제 의원

이게 자치행정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지역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은 우리지역에서 구매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또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의 갭을 좀 줄이는 방안, 이렇게 해서 좀 상생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서 지역이 뭔가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히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고 조사도 하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무상으로 했으니까 연말에 가서 서류만 맞으면 정산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구매내역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김경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림학당 연계된 건데 서림학당에 관련해서는 김아진 의원님이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결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조동준 의원

어쨌거나 서림학당에 이런저런 논란으로 밖

에는 시민단체들 간에 얘기도 있었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조동준 의원

그런데 그 자체의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저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 육성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에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 제목에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서림학당 안정적 지원'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조동준 의원

우수인재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인재인가요, 지금 관점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관점에서……

○조동준 의원

이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뭐 쉽게 말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이렇게.

○조동준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0년도고 사실은 이 관점은 1980년에도 그랬고 1960년대에도 그랬을 걸로 저는 생각 드는데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맞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 나왔는데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을 얘기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또 지역을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관점은 수십 년째 바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우수인재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행정에서 이걸 권장하고 독려하고 있어요. 그 우수인재가 실제 외지로 나가서 좋은 대학에 가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되지도 않고 있고요. 결국 우리 행정의 정책이 어떤 이중성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서천군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결국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회제도나 대학입시제도의 문제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 서천사랑장학회가 지금 한 120억 정도 되나요? 130억 가까이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125억 정도.

○조동준 의원

그 엄청난 장학기금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조와 방향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남는 아이들이 예부터 못났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우리가 다 생활하고 있는데 지역에 아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또 한쪽에서는 청년들 남으라고 사업을 하고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는데 이제 조금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어떤 인재인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개입한다고 하면 이런 서림학당에만 머무르지 말고 지역에서 남아서 가업을 이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육성되도록 만들어줘야 지역에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 부분도 일견 타당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서림학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8월중에 우리군, 행정기관, 교육청, 학교, 장학회, 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를 한번 해서 서림학당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조동준 의원

서림학당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해서 적절하게 맞게 조정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의 아이들과 관련된 육성, 양성과 관련돼서 이 서림학당 그리고 진학을 목표로……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죠.

○조동준 의원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

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몇 년 전에도 요구를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여건들이 변화된 만큼 우리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라고 하는 관점도 많이 달라졌어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있는 사람인데 이게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이 인재라고 하는 이 40~50년 된 관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아직 우리의 정책이어서 특히나 교육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서천 같은 데는 좀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정책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아무튼 서림학당은 그렇게 협의해서 조정하시고요.

실제 다른 지역도 좀 살펴보시면서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잘 자라날 수 있는 또 다른 우리의 도움들이 필요한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소나마라도 내년사업이라도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교교육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또 필요하다.

사실 장학회 관련해서도 공부와 관련된 문제만 나오지만 예체능쪽 지원도 계속 아이들, 부모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조동준 의원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도움이 절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저런 확장된 영역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노력을 우리 군에서 같이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주문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한 것이 사실인데요. 똑같이 기회균등하게 전체 학생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이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앞서 김아진 의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여성 사무관 확대 이 부분이 지금 공약사업으로 해서 조직혁신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20년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 목표.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도 10.4%고요. 내년도가 1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내후년도가 13.1%인데 사실 금년도는 목표치에 상당히 미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이현호 의원

올해 사실상 목표치가 10.4%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이현호 의원

그런데 지금 5%가 안 되는 상황인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죠.

○이현호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9년 작년까지 어떤 주무팀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직 그런 부분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최소 2020년 올해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상 2018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금 결과를 볼 때는 이 사업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완수가 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내년도 정도 가면 목표치에 근접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건 무슨 얘기냐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주무팀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소수인원에 불과한데 행정직 이외 다른 직렬이 또 있어요, 보면. 거기에 보면 거기도 나름대로 길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올해는 실상

목표치 달성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자연스럽게 여성사무관이 확대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사업으로서 여성사무관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조직을 혁신하자라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죠.

○이현호 의원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추진돼야 될 사업인데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업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주무팀장 같은 경우도 어느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여성공무원을 적극 발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남성 공무원 6급이면 사무관 승진 그 재직기간이 6급 빠른 분들은 한 12년, 늦은 분들은 15년, 17년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그렇게 경력이 15년 이상 된 그런 경력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12년, 15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찌되면 기회가 닿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또 주무팀장 갈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성사무관 확대 이 사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범수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질문은 아니고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154페이지 군세징수목표액 초과달성해서 상반기 목표대비 130% 징수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박범수

예.

○조동준 의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중소 자영업자랑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개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영향이 없었나요?

○재무과장 박범수

지방세 군세부분은 매년 부과징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은 크게 받지는 않았어요.

○조동준 의원

다른 부분에서는요?

○재무과장 박범수

따로 공유재산이라든가 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추진해서 감면 해주고 있었는데요. 세금 이 군세부분은 크게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조동준 의원

감면을 해준 부분은 어느 정도 돼요?

○재무과장 박범수

금액적으로요?

○조동준 의원

대략.

○재무과장 박범수

1억 6천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실제 다른 어떤 저희가 징수에 대한 것들과 관련해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박범수

이 부분은 조금 영향은 적었지만 체납세금 징수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죠. 대면도 못하고 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감면 해준 것이 한 1억 6천정도 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박범수

예.

○조동준 의원

체납자 포함해서?

○재무과장 박범수

체납부분은 아니고 소상공인들.

○조동준 의원

기본비율로 감면해준 것이?

○재무과장 박범수

예.

○조동준 의원

그럼 체납자나 이런 분들한테, 아까 긴급복지지원?

○재무과장 박범수

예.

○조동준 의원

복지연결. 이 사항만 해당되나요, 그러면 그 분들은?

○재무과장 박범수

긴급복지연결서비스는 저희가 징수과정에서 생계가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을 복지부서와 연결하는 서비스죠.

○조동준 의원

아무튼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생계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와 연결돼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체납이나 이런 거 코로나 연결돼서 체납자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박범수

예, 지방세에 대한 지원은……

○조동준 의원

지원이 아니면 아예 징수를 유예시켜주든가……

○재무과장 박범수

징수유예, 뭐 감면 이런 부분이 검토되기는 했어요. 도와 중앙부처가 검토되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감면이나 유예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조동준 의원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박범수

그 정도, 유예까지 갈 정도의 사안은…… 크게 저기는……

○조동준 의원

그랬다면 다행인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는 하셔서 저는 사실 그 내용은 잘 몰라서 쭉 내용에 보니까 코로나와 관련 돼서 별로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승완 관광축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나학균 의원

관광축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강신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강신두 의원입니다. 서면 마량리에 성경순례지 잘 알고 계세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강신두 의원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운영부분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강신두 의원

운영은 문화진흥과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강신두 의원

그러면 입찰한 것도 문화진흥과에 다시 알아봐야 되겠네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강신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171쪽에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조성사업 중에 2개동은 매입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같이 하는 건물 중에 69개 건물은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건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이 부분은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매입건물이 9동이고요. 토지는 7필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사를 할 때 우리가 매입을 않는 다른 건물도 같이 조사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아진 의원

그럼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문화적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치가 있는 건 문화재등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문화재등록이 되면 매입가가 올라가고 해서.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일단 지금 매입은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다 완료 했습니다. 다만, 건물만 2동이 남았는데 그분도 외국에 한 분이 사셔서 그분들이 다 승낙은 했습니다. 다만, 서류가 좀 늦게 와서.

○김아진 의원

협의는 됐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아진 의원

이런 조성을 해 놓으면 또 지역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교육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그래서 향후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의 기본원칙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 저번에도 한 2번 만났습니다.

○김아진 의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174쪽하고 175쪽에 예전부터 계속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번에 궤도형전기차로, 원래는 전차였죠? 그러다가 궤도형전기차로 바꿔서 변경해서 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를 추진하겠다라고 여기 주요내용에는 써 있으시면서 국비확보를 하겠다 하시는 거 보면 또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에 트램을 할 때는 민자유치 계획을 잡았다가 워낙 트램에 대한 설치비용이나 향후 과제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걸 검토하다가 궤도형전기차가 그래도 타당할 것 같다 해서 일단은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공모사업 준비중이시라는 거죠, 이것도?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일단은 행정절차를 또 밟아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심사 같은 것도 해놔야 향후에 국비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 지금 밟고는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정선이나 곡성은 관광열차로 만들어서 지금

궤도형전기차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죠?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아진 의원

여기 이 두 곳은 운용이 잘 된다고 하던가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그쪽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 사업 구상할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궤도형전기차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아진 의원

그다음에 175쪽에 보면 케이블카가 안 되니까 곤돌라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곤돌라는 저희들이 사업이 엄청 소규모로 하는 거거든요. 파주하고 강화 같은 데, 태백 같은 데는 곤돌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길이를 한 1.5~1.8km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2대만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김아진 의원

2대만 계획을 하다보면 그거에 맞춰서 하겠죠. 더 2대 이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투자하는 회사하고 이미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는 걸로.

○김아진 의원

그러면 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우리군에서 다 100% 군비 들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인허가 절차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만, 그 지자체에서 10%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모든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아진 의원

민자 업체에서 하고?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다만 인허가 부분을 고려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면 하고 나면 우리 군에 돌아오는 거는 뭐가 있나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우리가 10% 참여했기 때문에 10% 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금의 10%를 저희가 받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면 수입금의 10%를 우리군이 확보한다는 것이죠?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아진 의원

예전에 케이블카 추진하실 때 그 제련소 굴뚝을 이용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계속 안 됐기 때문에 무산됐지 않습니까?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제련소 굴뚝은 사실상……

○김아진 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이번에는 제련소 굴뚝은 아니고요. 송림 저쪽 4주차장, 제련소 쪽에서 오는 거기에서부터 청소년수련관 그 앞쪽에 스카이워크 조금 더 가서 그 정도 거리만 하는 겁니다.

○김아진 의원

예전에 케이블카 했던 그 노선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그거보다 많이 축소 됐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 사이에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지금 현재 아직 MOU는 체결된 상태 아니고요. 이제 이 회사가 왔을 때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현장 보고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긍정적인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아직은 조금 보고할 단계가 아니라는……

○김아진 의원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일단 MOU를 체결한 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춘장대 안전감시대를 지금 설치를 하나 했잖아요, 중앙에?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중앙에 했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모래사장에 너무 바닥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철제로 된 그것들은 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헐거워지거나 삭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부식 말씀하시는 거죠?

○김아진 의원

예, 그래서 부식이 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그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도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더 입혔습니다. 부식 예방을 위해서.

○김아진 의원

그러기는 하는데 설계하실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한 1m정도 높여서 시멘트처리를 한 다음에 지대를 높인 다음에 하셨으면 좀 더 유지하기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모래가 그 안까지 다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염기가 들어있는 것들은 더 빨리 부식이 되잖아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맞습니다.

○김아진 의원

안전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켜봐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예, 이미 설치된 것이라서 앞으로……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나름 그래도 튼튼하게 했습니다.

○김아진 의원

앞으로 관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또 나머지 2개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나머지 2개는 해변가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김아진 의원

그런 해안가에 설치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관광종합발전계획 보고서 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지금 김아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송림 산림욕장에 곤돌라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경제 의원

MOU 체결은 아직 안 했고.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경제 의원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과연 거기가 입지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게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의향은 들어보셨어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주민들의 의향은 그동안 케이블카 관련해서부터도 계속해서 서로가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제 의원

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첫째, 주민 공감대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게 최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 인가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그 부분은 주민들을 설명회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게 선후를 바꿔서 하면 안 돼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그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곤돌라 설치가 실질적으로 유익하냐? 거기에 논란이 굉장히 주민들 간에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의 상태도 주말은 포화상태가 되고 있어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데 여기다 기능을 더 넣어서 과연 우리 군에서 어떤 이익이 있으며 송림산림욕장을 보호하는데 어떤 효과를 누릴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경제 의원

우선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사업은 어느 정도 가놓고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받겠어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그 부분은 8월중으로 저희들이 한번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선후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경제 의원

지금 정선하고 곡성 다녀오셨다고 했죠?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경제 의원

잘 된대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파주……

○김경제 의원

구체적으로 확인하셨어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갔다 온 건 아니고 전 사람들이 갔다 왔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렇지만 다녀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정선군에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다녀오셨으면? 그냥 구경만 하고 오셨어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실질적으로 그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김경제 의원

보세요,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한 자료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곡성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 줄기 따라서 도로가 있고 도로 위에 열차가 운행되고 있죠?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경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성군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을 끌고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알고 계세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경제 의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경제 의원
자, 우리가 지금 이 궤도형전기차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면 우리 지역은 곡성이나 여기에 비해서 자연경관이 굉장히 떨어지고 열악합니다. 그렇죠?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경제 의원
사실은 거기보다 더 준비를 철저히 해도 성공이 될까 말까 걱정이 돼요. 그렇죠?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경제 의원
자, 민간투자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사업성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까?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래서 사전에 정선 그냥 일시적으로 가서 현장만 보고 오고 거기에서 대충 그런 목소리를 듣고 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선군이 현재 1년에 얼마가 들어가며 얼마의 효과가 있고 얼마나 적자가 되는지, 곡성은 어떤지, 또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곡성 같은 데를 보세요.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열차 출발하는 곡성역 주변에 식당이 300석 이상 되는 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경제 의원
다 문 닫았죠?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
○김경제 의원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실·과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1~2번 다녀오셔서 결정하지 마세요. 수도 없이 다니고 가서 보고 들여다보고 주변의견도 듣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저 여덟 번 갔다 왔어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의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군에서 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경제 의원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를 보면 앞으로 서천군이 자립도가 없는 데서 엄청난 암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만큼 발로 뛰고 노력해서 진짜 보완하고 우리가 경관조성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탕 위에서 사업이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막상 하게 되면 지금 230억이지만 이 사업이 2년, 3년 후에 시작되면 350억이 들어갈지 400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경제 의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진짜 하루 이틀 바쁜 시간 내서 다녀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무슨 사업을…… 모든 게 그래요. 지금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주민의 공감대를 못 이루고 있어요. 그건 아세요? 판교 가면 시간이 멈춘 마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인정들 하세요, 주민들이?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그래도 저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김경제 의원

그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없는 사업을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계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자료수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료가 진실한 건지, 지금 대체적으로 모든…… 우리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타 지역에서 와서 타 시군에서 와서 물어보면 우리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지사예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김경제 의원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완공된 후에 진짜 우리가 박수를 치고 기대했던 것만큼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릴게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중복되는데 한마디 드려야 돼서.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말씀하십시오.

○조동준 의원

저는 이제 곤돌라로 바꼈는데 케이블카 사업 하신다고 하실 때부터, 김경제 의원님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을 반대의 입장입니다.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조동준 의원

그래서 8월에 지금 MOU를 체결 하겠다고 하시고 지금 군이 10%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신데.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조동준 의원

아무튼 더 여지는 있겠지만, 협의과정에서.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앞으로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렇죠. 아무튼 이 업체도 어쨌거나 사업성을 따져서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10% 투자해서 얻을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외에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혹여 10% 투자했는데 사업이 안됐을 때에 대한 부담은 또 어떻게 안을 건지……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그런 부분도 사실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하는……

○조동준 의원

그리고 뒤에 지금 뭐였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송림지역을 포함해서 브라운필드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논의되고 고민되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실제 브라운 필드 같은 경우에도 자연습지나 이런 것에 대한 아이템도 연구되고 고민되

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곤돌라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자연적인 영향이나 경관적인 거나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이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입지 조사를 해 보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환경적으로 영향이……

○조동준 의원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외부…… 저희가 중앙부처나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반대하고 싶어도 따온 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납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지점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물론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민자로 이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막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사업의 신중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잘 추진하지 마시고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접근하셔서 아무튼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관광축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승완 관광축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하여 주신 실·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나학균, 강신두, 노성철, 김경제,
조동준, 이현호, 김아진 (7명)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부군수	이교식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재무과장	박범수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농정과장	박명수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건설과장	조남용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보건소장	김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병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대철

○의회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의회사무과장	정진형